

지식정보사회의 공유공간 효용성 제고를 위한 보도육교 환경개선방안

A Study on Environment Countermeasure of Overhead Bridge for Improving Effectiveness of Public Space in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황복득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Hwang, Bok-Deok

Dept. of Interior Design, KGU

• Key words: Environment Countermeasure of Overhead Bridge, Public Spac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1. 서론

1-1. 연구배경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께 하는 지식정보 강국 건설”이라는 슬로건은 정보 격차(Digital Divide)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집집마다 1대 이상의 PC를 보유하게 하였고 이들 중 3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굳이 도심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도 교외지역에 거주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는 등 정보화로 인한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지식정보사회는 컴퓨터를 통하여 시·공간의 제약 극복하는 등 현실사회의 활동을 보완하는 새로운 사회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 네트워크 구축 환경은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여러 조직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의 입력 및 공동사용과 접근도 향상이라는 무형의 환경정보 네트워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배경아래 지식정보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 환경 속에서 비인간적 환경시설물로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과 불편을 주고 있는 보도육교(Overhead Bridge)의 문제점을 개선 발전시켜 지식정보사회 공유공간 효용성 제고를 위한 보도육교 환경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및 목적

지식정보사회의 공유공간 효용성 제고를 위한 보도육교 환경개선 방안을 위해 본 연구는 사거리내의 차도를 중심으로 보도육교를 형성한 새로운 방법의 가로 건축물을 배치하고자 한다. 이 가로 건축물의 배치로 대상지 이용자들에게 대면(face-to-face)의 장을 제공하게 되고, 장소에의 신뢰 및 향구적인 만남의 장을 구축하는 등 빠른 정보교환이 이뤄질 수 있는 접근성과 융통성(Flexibility)을 제공하게 된다.

인터넷 상용화로 인한 Off-Line과 On-Line 공간을 이어줄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에서 이를 돕기 위한 환경적 구축방법으로 접근이 용이한 보도육교를 활용하는 것

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중심의 급속한 인구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동을 위한 집결통로로 이용되는 보도육교를 보다 효용성 있는 지역문화정보 교환의 장 역할과 다양한 행태를 지원하는 공유공간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언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육교라는 장소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지식정보 사회의 공유공간 형성에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지식정보사회 공유공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신 보도육교 설치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우리 나라 교통사고 발생의 가장 큰 특징은 보행자 사고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우리 나라에서는 3890명의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졌고 이 가운데 324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²⁾

이러한 현상은 보도육교가 수없이 많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람들이 건너기 꺼려한다는 점과 먼 거리의 횡단보도 설치로 이용을 꺼린다는 것이다. 간혹, 어쩌다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의 짧은 보행신호와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위험에 노출되게 한다. 물론,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두 말할 필요가 없겠다.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교통안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역시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수직이동형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수직이동형 보도육교의 설치에 전체국민의 25%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이동제한 자들에게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이동권과 소외계층의 사회활동을 적극 유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보도육교의 설치 예³⁾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는

2) <http://www.joydrive.com/newsdata0202.html#top>

3) 사례1.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앞 보도에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육교가 국내 최초로 설치.

사례2. 신정3동 금옥여고 앞 ‘장애인겸용 보도육교’ 설치

사례3. 복합생활문화공간 센트럴시티는 서초구 반포동 사평로에 종래의 육교와는 다른 신개념의 보도육교 ‘센트럴 포인트 육교’를 신설

1) <http://www.joydrive.com/newsdata0202.html#top>

데, 이러한 현상은 아래 5가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서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 신 보도육교 설치의 5가지 효과

1. 횡단보도상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
2. 물리적 측면에서 상부교량의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조형미를 실현하는 효과
3. 사람보다 차량위주의 현 도로교통 여건에 부합되는 잦은 신호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와 물류비용 상승을 억제효과
4. 쾌적한 도시환경을 실현
5. 지식정보사회 복지 실현에 일익을 담당

보도육교를 위한 구조물 설치 방법으로는 경사로형과 수직 이동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사로형은 아래<표 1>와 같은 사람들의 행동변화와 기후 적인 문제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표 1> 사회복지형 신 보도육교와 경사로형 육교와의 장단점 분석⁴⁾

구분	장점	단점
경사로형	· 시공 후 유지, 관리가 필요 없다.	· 인도가 좁아져 또 다른 불편을 가져온다. ·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변 상가의 반대 민원이 많다. · 겨울엔 빙판으로 변해 위험하므로 전혀 이용할 수 없다. · 경사각이 크고 길어 휠체어 장애인인 경우 자력으로 이용할 수 없다. · 공사비가 상승한다.
수직 이동형	· 경사로형에 비해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 구조를 갖는다. · 노약자,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무거운 짐을 든 사람들 누구나 손쉽게 이용가능.(육교길 무단 횡단 사고 예방: 98년 253건) · 공사비가 경사로형에 비해 저렴.(1개소당 약2,500만원 ~ 3,000만원)	· 시공 후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 유지 관리비 : 연간 ₩2,340,000 추정 · 전력 : 420,000 · 정기점검 : 1,200,000 · 부품교체 : 1,500,000 *해결 방안 · 공사비 절감 차액만으로도 약20년간 비용충당.

참고 1) 전국 최근 육교설치 현황 (행정자치부 통계자료)

구분	1994년도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개소	737	769	851	944	1,073
증감		+32	+82	+93	+129

* 매년 90여건 신설, 서울시는 지하철 개통으로 일부감소, 최근 장애인용 수직이동형 부설 육교의 등장.

3. 지식정보사회 공유공간의 개념과 효용성 고찰

공유공간이라 함은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적, 문화적 공간으로 공통의 욕구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심신의 건강과 정서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사회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공간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고갈되어 가는 정서적 자원을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새롭게 배양 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우리 삶의 양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줄 뿐 아니라 삶을 통합된 질서로 형성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웃과 만나고 사교하는 공동체 생활을 실현하는 공간이나 생활편의 시설들이 제대로 마련 되어있지 않다. 그럼으로써 도시생활의 개인화 경향이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완충공간으로서 공유공간은 지역사회 애착심 고양과 복잡한 도시공간의 동선을 명확하게 하는 등 이웃들이 서로 교류하는 생활문화를 육성하고 이어주는 공유공간으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즉, 공유공간은 생활문화환경 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자체적으로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공동의 공간으로 사용권, 소유권, 영역권을 가지는 반사적(反私的) 영역의 개념과 보도육교에 이르는 보행접근성과 편리성을 이용하여 지역인에게 이동의 편리성과 지식정보사회의 양질의 정보축적 및 배분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지식정보사회 공유공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시, 구, 동별로 하나정도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현 복지시설과는 달리 모든 생활권 내의 다양한 기능의 공간들이 공유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하나의 건물형태 혹은 집합적 형태로 나타나기까지는 영리보다는 복지를 위한 차원의 공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야 한다는 근접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 주변의 공유공간 중 꼭 필요하면서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거나 새롭게 요구되는 공간 즉, 보도육교를 지식정보사회의 공유공간으로 제시함으로써 미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영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연구회,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 김민웅(1999), 21세기를 대비한 행정서비스의 과제와 전망, 한국행정연구 제 8권 제 2호
- 유사라, 정보화 사회와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나남출판, 1996
- 강병기, 삶의 문화와 도시계획, 나남출판, 1994
- 이연숙, 삶의 질과 환경디자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 5)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연구회,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p. 345-346 요약 재인용

4) <http://www.spaceframe.co.kr/index.htm>